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310·538·3333 samsungmoving.com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8, 2015 Vol. 502

위대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통일" 기도! 기도! 기도로!!

(완쪽)그날까지선교연합(UTD) 주관 'LA통곡기도대회'가 4일(주일) 오후4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렸다. (오른쪽)통곡기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실상을 알리는 자료 전시관이 본당입구에 마련됐다.

통일 위한 기도대행진 'LA통곡기도대회'로 마무리
통일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

"남북이 하나되는 진리보다 앞서는 진리는 없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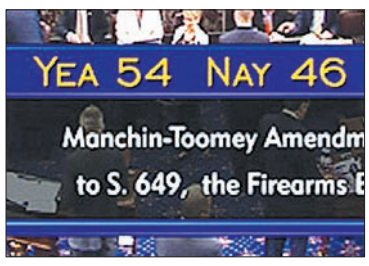
분단70주년을 맞아, 올해가 남북통일의 원년이 될 것을 바라는 'LA통곡기도대회'(이하 기도대회)가 4일(주일) 오후 4시 엘에이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이 기도대회를 끝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미 전지역에 걸쳐 진행돼 왔던 '기도대장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자각시키며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 기도대회는 남가주 모든 한인교회들의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일동이 주최하고 그날까지선교연합(UTD)과 해외3천인 목사단이 주관했다.

연합합창으로 시작된 이날 기도대회는 손인식 목사(UTD-KCC국제대표)가 기도통일을 선포하는 환영사,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북한 지명을 하나하나 외쳐가며 선언한 개회선언,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 김성민 목사(남가주새소망교회 담임),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가 차례로 함께한 '통일을 바라나이다' 주제 기도 독려, 해외동포들의 기도행진 동영상, 이소연 자매의 탈북간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강제 수용소에 갇힌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중국 땅에 숨어있는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총기규제법 수정안 중 하나인'맨신-투미안(案)'에 대한 표결 결과 표시. 100명 중 60표 이상을 얻지 못해 표결이 무산된 총기규제법 수정안 중 하나인 '맨신-투미案'에 대한 표결. YEA(찬성), NAY(반대) 표시(2013년) ⓒ상원 TV 화면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총격희생 당해
오레곤 주 엄프콰 커뮤니티칼리지 총격사건 통해 총기규제 엄격해야

오레곤 주 로즈버그의 엄프콰 커뮤니티칼리지 신더 홀에서 1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건 발생일 기준 최소 1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살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학내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희생이 더 컷다고 한다. 전역군인인 크리스 민츠가 7발의 총알을 맞으면서까지 범인을 저지한 희생으로 대형참사를 막았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종교문제가 개입됐다는데 있다. 크리스천인지를 물은 다음, 한 명 한 명 조준사격한 것이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생명 위협이 중동 이슬람권에서만 일어나는 남의 일이 이제 더 이상 아닌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이곳 미국땅에서조차, 총기라는 흉기를 앞세워 위협당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 위협의 목전에서도 크리스천이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희생당한 그들이야말로 스데반을 닮은 진정한 믿음의 용사요,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리라.

미국 인구를 3억 2천만 명으로 추산하면 전체 인구의 84%가 총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내 총기 관련 사고 사망자가 테러 희생자보다 무려 120배나 높다고도 한다. 강력한 총기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영인 기자

"OC교계, 차세대 리더 장학금수여식"
리더십 네트워크 발족…영 김 의원, 차세대 리더십상 수여

오렌지카운티(OC) 한인교계가 미국을 이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영 김 의원과 함께 차세대 리더십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OC교협(회장 김기동 목사)은 3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고등학생 31명, 대학생 31명 등 총 62명의 학생에게 각각 500달러씩 총 3만1천 달러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도 참석해 모든 장학생들에게 차세대 리더십 상을 수여했다.

OC교협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김 의원과 협력해 차세대 리더십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제1기가 되며 향후 OC교협의 장학생이 이 네트워크에 가입할 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기수 별로 김 의원으로부터 리더십 훈련과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하며 김 의원은 "이 장학금에는 돈 외에도 여기 모인 목사님들과 교회의 기도가 담겨 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힘입어 현대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OC 교계,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

[1면으로부터 계속] OC교협 회장 김기동 목사는 "장학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장학생들 간 상호 연합과, 자랑스런 한인 정치인으로부터 훈련받는 일은 리더십 계발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김기동 목사를 비롯해 민승기 목사, 엄영민 목사, 송규식 목사, 신현철 목사, 민경엽 목사 등 OC교협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한기홍 목사가 '꿈을 꾸고 이루라(창 37:6-9)'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영김 의원 외에도 유수연 위원(ABC교육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장학금 후원 OC 지역 교회와 교계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 6,500달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각각 5,000달러, 충만교회(김기동 목사)와 갈보리새생명교회(민승기 목사)는 각각 1,500달러를 기탁했다.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엄영민 목사),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 얼바인연합선교교회(신현철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박재만 목사), 조이피플교회(김성지, 이태종 목사), 남가주제자교회(이선자 목사), UBM

OC교협이 미국을 이끌 한인 차세대들에게 장학금 3만1천 달러를 수여했다.

교회(앤드류 김 목사), 남가주지구촌교회(곽재필 목사), 임마누엘훼로쉽교회(안충기 목사), 로고스교회(박경일 목사), OC원로목사회(최승구 목사), OC장로협의회(김종대 장로)는 각각 500달러, 기타 단체로 PNS한인록(윤우경 사장) 1,500달러, 게이트웨이 아카데미(유수연 교육위원) 1,250달러, OC한미시민권자협회(김도영 장로) 250달러, 개인 이범식 장로(OC교협 후원회장)와 이중열 장로(OC교협후원회 이사)가 각각 1,000달러, 김영수 장로(OC교협후원회 이사)가 500달러를 각각 냈다.

김준형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국제금식기도원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부원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 따라 교계 섬기는 성산으로"

나성순복음교회 국제금식기도원 창립 30주년 및 부원장 이·취임 감사예배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성산(聖山)이 되어온 나성순복음교회 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창립 30주년 및 부원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4일(주일) 이 기도원에서 열렸다.

1985년 10월 11일 故 최자실 목사에 의해 기도원이 설립될 당시부터 30년간 부원장으로 섬겨온 고헬렌 목사가 은퇴하고 40대의 젊은 이태준 목사가 취임했다.

진유철 목사는 "고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 사역이 있었기에 황무지에 꽃을 피우듯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오늘과 같은 기도원이 됐다"고 이임하는 고 목사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 목사는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서 사역한 지 30년이 지났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은 리더십 교체와 이번 30주년을 기해 기도원을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원'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비전을 세웠다. 이 개방이란 단어 안에는 '적극성'과 '연합성'이 포함된다. 나성순복음교회와 기도원이 100% 후원, 헌신해 초교파 연합 기도회, 미자립 교회 청소년 연합 집회와 연합 VBS 등을 기도원에서 연다.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내 기도하도록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나성순복음교회 교구장 출신인 이태준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석사(Th.M.) 과정 중 도미했다. 베데스다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D.Min.) 과정 중에 있다.

기도원 주소는 30250 Gunther Rd. Romoland, CA92585이며, 전화번호는 951-928-4415이다.

김준형 기자

북한 구원 위한 "LA통곡기도대회"

[1면으로부터 계속]북한의 지하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제로 손인식 목사가 첫 번째 '통곡기도' 시간을 인도한 후, '내 탓입니다' 주제로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와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담임)가 짧은 말씀을 전한 뒤, 500인 연합성가대(지휘 조성환 목사, 솔로 최정원)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특별찬양,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박희민 목사는 '통일은 재앙입니다'(예레미야33:3) 주제의 설교를 통해 "북한 동포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모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없이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에벤에셀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독일통일이 그랬다. 작은 기도의 불씨가 결국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며 "모든 비극은 조국 분단에 있다.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희민 목사의 설교가 끝난 뒤, 탈북 최수향 자매의 아코디온 연주 및 찬양, 신은하 자매의 간증 시간이 뒤따랐다. 그 뒤 곧바로 이어진 두 번째 통곡기도는 손인식 목사와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의 인도하에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을 주옵소서, 피흘림과 보복이 없는 통일을 주옵소서, 한국민족이 위대한 나라 되는 통일을 주옵소서" 주제로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동서독의 통일처럼' 주제의 독일통일 관련 동영상과 이민복 선교사(대북풍선 단장), 지성호 형제(NAUH, 나우 대표) 등의 탈북자 간증 후에 마지막 세 번째 통곡기도 시간이 뒤따랐다.

세 번째 통곡기도 시간에는 백정우 목사(동신교회 담임) 인도하에 "한국교회가 교만과 허영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통곡기도의 불길이 휴전선을 태우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통일의 주역을 담당하게 하소서" 주제로 진행됐다.

모든 통곡기도 순서가 끝난 후에는 주님의영광교회 성가대가 찬양하는 동안 탈북자 구출과 탈북민 치유사역을 위한 특별헌금(헌금기도 곽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 담임))과 통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전 세계에 선포하는 호소문' 낭독이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담임)와 김성환 집사(KCC 디렉터)에 의해 선포됐다.

마지막 순서로 다함께 애국가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합창한 후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의 축도를 끝으로 '통곡기도대장정'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이날 사선을 넘어온 탈북 간증자들은 끔찍한 북한 실상에 대해 생생하게 고발하며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교회본당 입구에서는 북한 실태 관련 자료전을 열어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경험케 했다. 후원문의는 전화 949-297-3788나 홈페이지 www.kccnk.org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밸리교협, 통일과 북한 구원 위한 기도회 개최

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곽덕근 목사) 주최로 남북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회가 3일 나성평화교회(서오섭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회에서는 분단 70년 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길,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통일 한국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등의 주제로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했다.

밸리 지역 교역자들이 남북 통일과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교계연합음악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로 제35회 교계 연합 음악제가 열린다.

*일시: 10월 11일(주일) 오후 6시
*장소: 감사한인교회(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제 46차
임원 입후보 안내 및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 총회일시: 2015년 11월 2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세계성경장로교회 / 전화: 424-257-8169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등록비: $20
• 회비: $120
• 문의: 이현욱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전화/ 626-318-6611 E-mail/ Lhw7339@gmail.com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회장: 최 혁 목사

01 후보자격 (협의회 정관 제12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후보 추천 및 신청
1) 회장: 목회경력 10년 이상, 남가주 목회 3년 이상된 담임목회자
2) 수석 부회장: 차기 회기에 회장 자격이 있는 자
3) 부회장: 목회 경력 5년 이상, 남가주 목회 3년 이상된 목회자 및 현재 시무장로 및 시무권사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이 있는 자

02 제출서류
1) 이력서 2) 교단추천서 3) 목사안수증명서
4) 교회주보 5) 발전기금 6) 담임목사 추천서(장로/권사)
+ 발전기금(Cashier's Check)
회장: $5,000 / 수석부회장: $3,000 / 부회장: $1,000

03 제출기한
+ 2015년 10월 24일(토) 까지
+ 제출 주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문의 : 공천위원회 서기 백종윤 목사 (818-825-6354)

04 공천위원회 모임
+ 일시: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 장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함께 희망의 마을을 세워가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고통 받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나누는 지구촌 공동체를 꿈꾸며 2011년 서울에서 설립된 NGO단체로 파사디나에 미주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프(Gobal Hope)의 대표 조용중 목사가 최근 미국을 방문, 남가주와 뉴저지 등에서 설교와 선교세미나 등을 통해 사역을 소개하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비전을 심었다.

글로벌호프 대표 조용중 목사(맨 왼쪽)가 네팔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우기에 대비한 거주지 복구에 필요한 양철을 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통받는 땅에 주님 사랑으로 희망의 빛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8〉 글로벌호프 대표 조 용 중 목사

네팔 대지진 피해지역서 주민들에게 생필품 등 제공
태풍 강타한 필리핀에서는 대형 고등학교 건축도
구호 복구 재건 변혁으로 '희망마을 세우기'에 앞장

필리핀 선교사 출신인 조 대표는 "글로벌호프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한인교회들이 해 준 사랑의 헌금으로 2015년 4월 강도 7.8의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과 2013년 태풍 하이옌이 할퀴고 간 필리핀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네팔의 경우 수도 카트만두 인근을 뒤흔든 80년만의 대지진으로 8,884명이 사망하고 가옥 붕괴 약 60만 채, 가옥 파손 약 28만 채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글로벌호프는 약 5,000가구가 거주하는 고르카 지역의 콥랭 마을과 약 1,400가구의 보금자리인 신두팔촉 지역의 쿤촉 마을에서 긴급 구호와 복구 및 재건사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쿤촉 마을의 경우 99%의 가옥이 파괴됐다. 우리는 두 마을에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임시 거주에 필요한 텐트와 담요, 방수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후 3차례에 걸쳐 거주지 복구에 필요한 양철지붕을 1,500여 가구에 제공, 주민들이 무사히 우기(몬순 시즌)를 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글로벌호프는 이밖에 임시보호소, 천막촌 등에 태양열 손전등을 공급하고 의료팀을 보내 주민들을 치료하는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상담가를 양성하는 사업도 벌였다. 뿐만 아니라 50만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두 컨테이너 분량의 쌀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1년여 전 우연히 힌두교도가 10%인 이 지역 출신의 네팔인을 만났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뒤 고향에서 살 수 없어 20여 년 전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그는 지진이 일어난 얼마 뒤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말없이 그들에게 구호품과 양철지붕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 알았지만 마을의 온갖 꽃을 꺾어 꽃다발을 만들어 주는 등 환대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 꽃다발의 꽃을 하나씩 빼어 다시 건네주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와 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마을을 떠났다는 그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호프 대표 조용중 목사.

조 대표에 따르면 지진이 난 네팔에서는 오랜 왕정이 무너지고 정당들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치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란기를 사익을 챙기는 기회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지진 초기에는 구호물자의 통관에 문제가 전혀 없었으나 구호물자로 장사하는 이들이 속출하자 네팔 정부는 구호물자도 가치의 1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통관하도록 조처하는 바람에 NGO단체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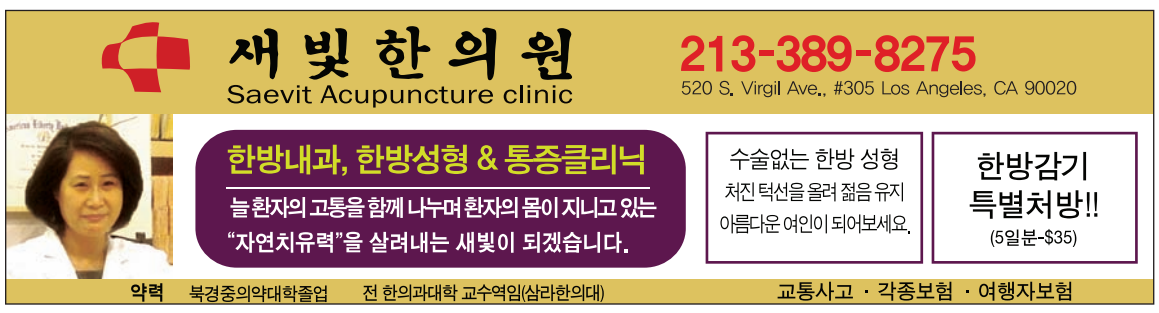
조 선교사는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선교를 위해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글로벌호프는 절망에 빠진 한 마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재건을 통해 변혁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희망 마을 세우기' 프로젝트를 지구촌 곳곳에서 펼치고 있다. 필리핀 동사마르 지역의 헤르나니에서는 서바이벌 키트, 의류, 학용품을 기증하고 전기기술, 농업, 보트 건조 등 생활대책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1,00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 건물을 올 2월 안전한 지대에 다시 짓고 한국문화센터를 만들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민 1세로 시카고에 거주하던 중 1987년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종합지역개발센터를 세워 사역했으며, 남다른 네트워킹 은사를 발휘, 선교자원 개발을 통한 세계선교의 활성화, 미국 내 1~2세 선교사 발굴, 선교협력 등에 힘써 왔으며, 랄프 윈터 박사와 함께 GNMS(Global Network of Mission Structures)를 시작하여 2007년 동경에서 세계 선교전략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후원 문의: usa@globalhope.kr
www.globalhope.kr

김장섭 전문위원



지난해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던 제27차 KWMC 연차총회 참석자들.

"2016 LA KWMC 준비"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28차 연차총회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연차총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4년 마다 열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준비다. 세계 한인 선교계의 축제로 꼽히는 이 대회에서는 선교사들이 네트워크를 맺고 정보를 교류할 뿐 아니라 매번 수천 명에 달하는 목회자, 평신도, 청년들이 참석해 선교에 도전받는다.

이 대회는 1988년 시카고 인근 휘튼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2012년 제7차 대회까지 24년간 같은 장소에서 열렸지만 내년 2016년 6월에 열리는 제8차 대회는 LA 인근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리게 된다. 개최 이래 최초로 장소가 변경되는 만큼 주최측의 준비도 한층 바빠질 전망이다.

KWMC 측은 이 대회를 준비하는 연차총회를 앞두고 "선교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반자적 협력과 연합을 다짐하며 교제와 토의의 시간을 나눈다"고 밝히고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연차총회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숙식은 은혜한인교회가 제공한다. 문의 전화는 845-267-4159이다.

김준형 기자

t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가 창립 40주년 선교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40주년"

선교축제 열고 또다른 40년도 선교에 헌신할 것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니콰라과, 잠비아, 우크라이나, 도미니카, 베네주엘라, 동 아시아 등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각 국의 선교사들을 초청해 선교 축제를 개최했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비전을 따라 '타코마에서 땅 끝까지' 라는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교 축제에서는 복음 전파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 선교사들이 다수 참가해, 전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 되고 있음을 증거하며 성도 모두가 선교적 사명 앞에 헌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최성은 목사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가 교회 창립 40년, 선교 40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한다"며 "복음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아픔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다.

축제 참가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선교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며 "선교지를 위해 힘써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교지로 돌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교회에 감사를 전했다.

선교사들은 이어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명하신 직분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현재적 명령"이라며 "내가 사는 도시를 시작으로 더 멀리 해외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선교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행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다"며 "모든 성도가 세계 각 국 선교사들의 선교지 사역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제2회 미주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체험케 하는 은혜를 통해 사명 회복의 참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일시: 10월 11일(주일) 오후부터 12일(월) 밤까지
*장소: 비전하우스
*주소: 32949 Oracle Hill Rd., Palmdale, CA 93550
*등록비: 없음(성경책 등 준비물 있음)
*문의: 이명수 목사(213-675-8291)
*주최: LA십자가영성원

한인기독교상담소 10월 세미나 안내

한인기독교상담소는 "용서치유와 분노조절"이라는 주제로 소그룹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으로 용서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 에버렛 워딩턴 박사가 개발한 용서를 통한 그룹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용서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유익은 무엇인지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될 것이다.

*주제: 용서치유와 분노조절
*일정 및 소주제
8일(목)/ 용서의 개념과 유익
15일(목)/ 용서 경험하기
22일(목)/ 감정 인식과 표현
29일(목)/ 분노인식과 조절
*시간: 목요일
오전반(10:30am-1:30pm)
오후반(2:30am-4:30pm)
*문의: 213-738-6930
*홈페이지: www.kaccla.net

설교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신학교의 총장과 주요 관계자들이 7일 월드미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소개했다.

"건강한 설교 문화 정착 위해"

신학교 설교 페스티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설교가 필수다."

제1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을 준비 중인 각 신학교 대표들은 이 행사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현대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며 신학교부터 자성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 신학교들의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이미 17개 단체가 총2만300달러에 달하는 후원금을 기탁하는 등 호응도 높다.

남가주 지역에서 ATS, ABHE, TRACS 등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한인 신학교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설교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7일 오전 9시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연다. 국제개혁대(예장합동), 그레이스미션대(예장국제), 미성대(미주성결), 미주장로회신학대(KPCA), 베데스다대(순복음북미), 에반겔리아대(재미고신), 월드미션대(WEMA) 등 7개 학교가 이 대회에 참가한다. 각 학교를 대표해 총 7명의 학생이 출전하며 각 학교마다 1명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교수들은 자기 학교 학생의 설교는 채점할 수 없도록 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으로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가 위촉됐다. 대상에는 3천 달러, 설교상과 주해상에는 각각 2천 달러, 커뮤니케이션상에는 1천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상금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과 학교에 주어지는 발전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회에 관해 미주장신대의 이상명 총장은 "경쟁보다는 건강한 설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가주 신학교들이 연합한다는 데에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미성대의 류종길 총장은 "교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속한 이들의 설교를 들으며 학생들도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 학교들은 차기 대회는 1.5세와 2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로 진행하며 타주의 한인 신학교는 물론 미국 신학교 내 한인 학생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미주기독한의사협회

미주기독한의사협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정기 예배를 드린다. 이 달에는 장소 이전 감사 예배 겸 영성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시: 10월 11일(주일) 오후 5시-9시
*장소: 마가교회(2515 Beb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문의: 이기미 회장(213-238-7169)

1일신약통독집회

하루 만에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집회가 열린다.

*일시: 11월 3일(화) 오전 8시-오후 9시
*장소: 헐리웃효순장로교회
*주소: 1101 S. Elden Ave. Los Angeles, CA 90006
*등록비: 무료
*문의: 213-268-3589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6년도 교수청빙

이-메일: mrtsusa@hotmail.com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웹사이트: www.mrtsusa.org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 ❖ 신학학사
- ❖ 기독교 교육학사
- ❖ 종교 음악학사
→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대학원과정(Master) 3년
- ❖ 기독교 교육석사
- ❖ 종교 음악석사
- ❖ 신학석사
- ❖ 목회신학석사
→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박사과정(Doctor) 2년
- ❖ 기독교 교육학박사
- ❖ 목회신학박사
- ❖ 신학박사
- ❖ 종교철학박사
→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 본교의 특징 -

● 본교는 세계 어디에서나 개혁주의신학을 연구하고 규정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및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 중에 재정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교의 학사과정은 "칼빈주의 예정론"을,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기독교강요"(생명의 말씀사 3권)를 각각 1/10로 요약하여 해당학위논문과 함께 졸업심사위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교무처: (323)428-7878 ● 교학처: (213)999-1307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2016년도 교수청빙 공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공하시고 해당 과목의 강의 경험이 있으신 분을 모십니다

과 목

◆ 기독교 세계관	◆ 변 증 학
◆ 기독교 철학	◆ 현대 신학
◆ 목회 심리학	◆ 이단 종파
◆ 문화 인류학	◆ 칼빈 신학

교수 프로필, 학위증명, 강의 계획서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립니다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영적승리 위한 공동체

사무엘상 18:1-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1. 다윗 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직접 왕처럼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하면서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정치하는 것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장 안전할 것인데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진정하라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 왕을 세워서 왕의 수탈과 압제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예언할 정도로 영적체질신앙인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사로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 붙들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길을 가야 하고, 하라 하시는 명령에 '아멘!'으로 '믿습니다.'로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 받았던 기간에는 승승장구 승리를 거두게 되고, 주변 나라인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성령이 떠나시자 악령이 찾아와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울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 쓰임 받는 한 부하가 왕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왕 옆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필경 악령이 도망갈 것입니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도 그 내일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미리 대궐 안에 들어가서 임금 견습 생활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벌판의 목동을 하루아침에 임금 자리에 가져다가 세운다고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미리 대궐에 들어가고, 왕 옆에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을 방문하게 된 것도, 거기서 골리앗의 조롱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 키가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의 목을 벤 것도, 그로인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된 것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늘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지혜인 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 공동체의 필수 조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1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런 영적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같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4절) 이것을 이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왕이고 그 맏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순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진 요나단이 영감적 지혜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임금직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니까, 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내 욕심은 없고, 오로지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공동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무리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7절)하였습니다. 사울의 공적은 다윗의 공적에 백분의 일밖에 안 된다는 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때로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자들이 문제를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의 생각과 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온 백성들로 사울 왕은 폐위 당하고,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할 것을 미리 예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황태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좌를 다윗에게 양보하려 하는데,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끝까지 왕좌를 내려놓지 못하고 더 강하게 악령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 가운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요나단은 성령께 사로잡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쓰임 받았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불평하고, 트집 잡고, 시비하고, 훼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회개하고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 영은 다시금 천국소망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회개치 않으면 악령에 시달리다가 여러 불행을 겪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승리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창립23주년 기념

심령부흥회

기간 : 2015년 10월16일(금)~18일(주일)

박현규 목사님
(대구삼일교회)

16일(금)
저녁 7:30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10:46~52)

17일(토)
새벽 6:00 요나의 기도 (욘2:1~10)
오전 11:00 하나님의 은혜 (고전15:1~10)
저녁 6:00 7가지 표적 (요2:1~11)

18일(일)
오전 9:00 성령충만한 삶 (살전5:16~18)
오전11:00 모범적인 교회 (행11:19~26, 13:1~3)

임마누엘선교교회
L.A. IMMANUEL MISSION CHURCH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찬양 인도자 청빙

영성과 실력을 갖추신
사명감이 투철한 분을 찾습니다.

1. 전공자, 유 경험자 한함
2. 목요 찬양예배, 주일 예배

자기 소개서 보내실 곳
dsbio@yahoo.com
기타문의 213.300.9762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꿈이 있는 공동체
올리브나무교회
Olive Tree Church (OTC)
300 S. WESTERN AVE LA CA 90020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유치부(Pre K-K)전도사 청빙

선한목자 장로교회는 LA 동부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치부(Pre-K)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실 파트 사역자를 모십니다.

1. 지원자격
(1) 신학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3)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신앙간증 포함),
추천인 2명 기재요함
(관계, 연락처 포함 – 추천서는 소정의 서류 심사 후에
요청드립니다)

3. 주요사역 : 주일 예배 및 주중모임(금요일 7:30pm)
인도와 기타 관련된 사역

4. 제출하실 곳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최 클락 목사–교육부 담당목사)

5. 제출마감: 2015년 8월 20일(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한목자 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 Rowland Heights, CA 91748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1907년 평양 대흥운동(2)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사실상 이끌고 간 이는 길선주(吉善宙) 목사다. 따라서 그가 없이는 이 부흥운동도 없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길선주 목사 없는 부흥은 상상할 수 없다.

후대 사가들로부터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 또는 "가장 위대한 한국 개신교 인물 중에 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길선주(1869-1935) 목사는 1869년 3월 15일 평안북도 안주에서 길봉순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길선주는 그의 부친이 말년에 얻은 자식이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의 가정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에 곤란을 받지 않았으므로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기대 속에 일찍 글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가 열한 살 됐을 때, 당시 관습에 따라 안주 성에 살던 신 협의 외동딸 선행양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해로하며 말년까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길선주는 한때 병을 얻어 병도 고치고 도(道)도 닦을 겸 조용한 곳에 가서 수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용악산에 입산하여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그는 불교의 일파인 관성교(關聖教)에 심취되어 그 교(教)의 주문 보고문(譜告文)을 만독(萬讀)하였다. 그러나 관성교에서 더 이상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한 그는 관성교를 포기하고 스물한 살부터 선도(仙道) 수련에 몰두한다.

길선주의 종교 편력은 다양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영적 만족을 주지 못했다. 1893년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 마펫(Samuel A. Moffett 馬浦三悅)이 처음으로 평양에 와서 선교의 교두보를 얻어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때 후에 그와 함께 평양 장로회신학교 첫 졸업생인 한석진(韓錫晋)이 그의 선교활동을 돕고 있었다. 길선주의 가까운 친구 김종섭이 마펫과 교분을 가지면서 그에게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탐구해 보라고 강권하며, 여러 기독교 교리서를 건네주었다. 학문적 탐구심이 강한 길선주는 그 책들을 탐독하면서 차차 기독교 진리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를 기독교로 이끈 결정적 책자는 존 버니언(J.Bunyon)의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이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김종섭의 권유를 받고 기도 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에서였다.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깊은 명상과 기도에 열중하면서 결정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 체험의 일단을 그의 아들 길진경(吉鎭京)은 다음 같이 기록했다.

"예수가 인류의 참 구주인지 알려주옵소서."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옥피리 소리가 방을 진동하더니 요란한 총소리가 흔드는 소리에 선생이 깜짝 놀라는 순간,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세 번 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섭고 떨려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자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터지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방성대곡하였다.……선생의 기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마음에는 기쁨이 용솟음치고 감사한 눈물이 샘물처럼 넘쳐흘렀다.……예수가 구주임을 알게 해 달라고 상제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선생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길선주는 19세에 관성교에 입문하여 29세까지 선도에 몰입하였다가, '아프리카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결국 기독교에서 그의 영적 만족을 얻었다. 1897년 7월, 29세 되던 해에 그레이엄 리(Graham Lee)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길선주의 기독교 입문에 대해, 김린서 목사는 "경하할 진저! 선생의 입신하던 날은 조선 교회의 지대(地帶)에 한 큰 초석을 정하던 날이요, 선생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던 날은 조선 교회의 건설 공사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조선 초대교회에 선생을 불러 내세운 주님은 당신의 경영을 위하여 축복의 손을 조선 위에 펴신 것이었다."라 기록했다. 길선주의 개종 이야기는 미국 만국주일공과에 게재된 바 있으며 또한 독일의 어떤 교회학교에서는 이 이야기에 감동한 나머지 헌금을 보낸 일까지 있었다.

길선주는 개종하던 해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영수(領袖)직을 받았고, 33세 되는 해에 장로로 피택됐다. 1902년에 마포삼열 선교사는 선생에게 평양 장대현교회와 황해도 각 교회의 조사(助事:전도사) 임무를 맡겼다. 그는 비록 보잘것 없는 보수였으나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일에 진력했다. 1903년에는 당시 마펫에 의해 새로 시작한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해 1907년에 제1회로 졸업했다. 그 해에 창립된 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무를 시작하여 20년 동안 목회했다. 1926년 박윤근(朴潤根) 등이 유지회(有志會)란 조직을 만들면서 길목사와 당회를 배척하여 교회 분규가 일어났다. 결국 그를 따르는 500여 명의 교인들이 갈라져 나와 이향리(履鄕里)교회를 창립해 길목사를 청빙하므로 그는 그곳에서 목회하며 전국 교회의 부흥 사경을 인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국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 대 교회 장대현교회를 떠나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자유스럽게 사경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신 섭리라 여겨진다.

길선주 목사는 서양에서 전래된 기독교를 한국 문화에 접목하여 한국적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백의민족이며 우리 자체가 백의민족의 문화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의 것을 애호하고 시대화 함에서 우리가 우리로서 성장하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다. 문화는 그 민족 역사의 배색(配色)이다. 문화는 인도의 척도요 역사는 민족 생태의 비망록이다. 남이 하는 일에 맹종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따르는 모방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된다. 모방은 자체의 얼이 빠진 표현이며 지식인을 자처하는 것은 앎의 구멍이 뚫림을 반영하는 것이다."라 하여 우리 민족의 얼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길선주는 1935년 11월 평서노회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 마지막 날 설교를 마친 후 강대 위에서 졸도한 지 하루 만인 26일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다. 〈계속〉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현 순 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기독교의 생명은 강한 부활신앙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가 삼일만에 부활 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밀씀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언젠가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다시 부활해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신한다.

예수님은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 장사 지낸지 이미 4일이나 지난 후에 그 무덤을 찾아가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고 하시자 시체인 그가 벌떡 일어나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 있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풀어주라고 하시니 나사로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더 있다. 어느날 라인성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장례식을 보게 되었다. 가난하고 외롭게 사는 한 과부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데 그 과부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관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울지말라고 하시고는 그 관위에 손을 얹고 "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엄마의 품에 안겼다. 그 엄마는 모든 것을 잃었다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 과부의 기쁨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가는 모자간의 행복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사건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 주신 일이다.

야이로는 신앙이 돈독하고 인품이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회당장의 자리에 있었다. 사랑하는 딸이 깊이 병들자 살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자 떠났던 영이 돌아와 일어나 앉자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본문은 모든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죽음 다음의 세상이 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믿지않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서 부활을 강하게 강조한 대목의 몇 절을 인용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끝없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에게는 살아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책을 통하여 설명한다; 주인공인 네프리토후가 세상의 못된 짓만 골라하다가 어느날 자기 때문에 한 평생을 망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카츄사를 보게 되자 회개한다. 추운 시베리아의 감옥에 간 카츄사를 붙잡고 용서를 빌고 카츄사도 결국 용서하므로 서로가 아픈 상처를 싸매며 같이 부활한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드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할 때 나는 부활하는 것이고 또한 어느날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믿는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FDA IND임상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tax 3병 $249+tax 6병 $474+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WHO is he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tax 3병 $179+tax 6병 $342+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남가주사랑의교회를 둘러보며 카페 등 여러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제15기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지난 2~4일 2박 3일간 애나하임 소재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교회 산하 국제제자훈련원 주관으로 열렸다. 교회 내에서는 보통 '평비'라고 축약해 불리는 이 컨퍼런스는 참석한 평신도 리더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가꾸어 가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소중한 행사.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매년 봄에 열려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 목회의 중요성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는 '칼 세미나'(CAL Seminar)의 평신도판인 셈이다.

온전한 주 제자 되어 세상 변화시킬 때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지난 2~4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에서 한인 및 중국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에서 6번째가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참가비를 일절 받지 않고 제공하는 평비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며, 교회 부흥의 진정한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아낌없이 공개하는 자리다.

보통 100여 명이 넘게 참석하는 행사지만, 이번에는 교회 주방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36명 규모로 축소되어 운영됐다. 샌디에고 한빛교회와 시애틀 우리교회에서 온 한인 평신도 리더 17명, LA, 토랜스, 새크라멘토에 있는 3개 중국인 교회의 평신도 리더 15명, 목사 4명 등이 참석, 이민교회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해답을 찾았다.

5개 한인 중국인 교회 리더들 36명 참석
강의 예배 다락방 참관 등 통해 은혜 받아
"평신도들의 영혼 섬기는 모습 큰 도전"
봄가을 열려 제자훈련 토양 기경에 도움

참석자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돼 주일 오후까지 진행된 평비에서 '예배와 찬양'(조성환 목사), '제자훈련과 교회론'(NEXT사랑의교회 김일영 목사), '제자훈련의 열매'(덴버 펠로십교회 김재중 목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들'(노창수 목사), '이민교회의 제자훈련'(디사이플교회 고현종 목사), '한 사람의 철학'(서울사랑의교회 박성수 장로, 동영상), '하늘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김홍장 전도사)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에 눈 뜨는 기회를 가졌다.

또 순장사역 간증(김관중 집사)과 예배개발원(박경민 장로), 교제개발원(이성윤 장로), 평신도사역원 및 훈련사역원(이강원 장로)의 사역소개 순서를 통해 제자훈련 목회철학이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토요새벽예배에 이어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남가주사랑의교회의 특징 중 하나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감격적인 주일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가운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펼쳐지는 천국 잔치의 모형으로서의 예배를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했다.

이밖에 교회투어를 하며 본당, 체육관 등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 대형교회이면서도 평신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목회하는 이 교회에 대해 평소 궁금해 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그 대답을 경청했다.

하이라이트는 순원 가정들을 돌아가며 금요일마다 열리는 '다락방 모임'을 3명씩 그룹을 지어 찾아가 제자훈련의 대표적 열매 가운데 하나로, 평신도 순장이 인도하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경험하는 시간과 수료예배 중 받은 은혜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결단의 시간.

참석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들이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았다" "본문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삶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다" "소그룹에서 생활의 무거운 짐을 서로에게 공개하며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에서도 감동을 받았다" 등의 소감을 내놓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믿음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매번 평비에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중국인교회 신자들을 위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국제제자훈련원 담당 김홍장 전도사는 "목사님들이 칼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 철학을 열심히 배운 뒤에 사역지에 돌아가면 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척박한 목회토양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점이 너무 마음 아파 평신도들을 깨워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전도사는 "훈련이라는 변화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던 평신도들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평비에서 목격한다. 평신도들의 마음밭이 기경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두렵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레 준비하고 있다. 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탄생한 남가주사랑의교회는 성탄헌금을 음지의 이웃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가 하면 미자립교회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부활절 호프 페스티벌, 저소득층을 돕는 무료 애프터 스쿨, 극빈층 자녀들을 위해 추수감사절에 운영하는 보아스 캠프 등의 행사와 대규모 장학사업을 통해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714-635-3000

김장섭 전문위원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i.us / aeuimaster@gmail.com

"다음 세대, 과학과 종교 간 분쟁 예상"

샘포드연구소, '초인류주의와 교회' 주제 컨퍼런스에서 밝혀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샘포드연구소 제공

인간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는 '초인류주의'(Transhumanism).

교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다음 세대 과학과 종교 간 이슈가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알라바마에 위치한 샘포드대학교의 과학과종교연구소는 지난 9월 24일부터 이틀간 '초인류주의와 교회'(Transhumanism and the Church)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다. 첫날 기조강연에는 약 120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과학과종교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스티브 도날드슨 교수 외에 피츠버그신학대의 론 콜-터너 박사, 위튼대학교 크리스티나 비버 레이크 박사, 애리조나주립대 조엘 가루 교수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스티브 도날드슨 교수(수학·컴퓨터공학 전공)는 "초인류주의가 교회에 미치는 잠재적 결과는 상당하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초인류주의의 미래와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반드시 이를 반대해야 하는가? 이러한 반대가 의미 없는 것인가? 종교적 지향에 따라서 기술 발전의 이점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공통적이고 유익한 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나와 연구소는 이것이 과학과 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초인류학자들의 노력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일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독교적 접근을 발전시키는 첫걸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았던 플로리다대학교 크리스토퍼 J. 베넥 박사는 "이번 콘퍼런스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이같은 이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베넥 박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허무주의를 가져오는 압제적인 초인류주의'와 '기독교적 초인류주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적 초인류주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다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선진 기술과 관련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분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슈들의 모든 면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컨퍼런스가 각 대학마다 더욱 많아지고 활성화되길 바란다. 선진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비평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샘포드연구소는 수 주 안에 콘퍼런스의 발제 내용들을 연구소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해 무료로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러스는 존템플턴재단과 잇사갈재단이 후원했다.

강혜진 기자

가톨릭 고위 성직자 계획적 '커밍아웃' 충격

크리스토프 올라프 카람사 신부, 주교시노드 개막전 커밍아웃 선언

로마가톨릭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총회(주교 시노드)가 개막하기 직전인 현지시각으로 3일, 한 바티칸 고위 성직자가 '커밍아웃'을 선언해 충격을 줬다.

폴란드 출신으로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교황청립 대학에서 일하는 크리스토프 올라프 카람사 신부(43)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평생 금욕생활만 하도록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하고, "이제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커밍아웃한 것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면서 사제직 포기도 각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히 외신들은 교황청이 설립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쳐 왔던 그가 이번 시노드를 계기로 동성애를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도했는데, 그는 "사제들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라며 "교회는 아직도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혐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크리스토프 올라프 카람사 신부(43)

한편, 4일 시작된 이번 시노드에서는 이혼과 재혼, 동성애 사목 문제 등 어려운 이슈를 다룬다.

바티칸 페데리코 롬바르디 대변인은 크리스토프 올라프 카람사 신부의 이번 커밍아웃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가 더 이상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교황청립 대학에서 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교황 "결혼은 이성 간 결합" 밝혀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전통적 결혼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황은 세계주교대의원회(주교 시노드) 개막 미사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4일(현지시각) AP통신이 전했다.

이날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 강론을 통해 "하느님이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창조물인 남성과 여성의 사랑으로 가득한 결합을 보시는 것"이라며 "남녀의 결합은 서로 여정을 공유하는 것이자 상호 간에 유익한 선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 "진정한 의미의 부부는 이런 하느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성(性)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이성 간 결혼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황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랑에 실패했거나 실수를 범한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추기경과 주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시노드의 주제는 '가족과 현대 세계'이지만, 전날 한 고위직 신부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한 사건으로 인해 동성애 관련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혜리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10-9573 / www.missionla.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집회 오후7:30
2부예배 정오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 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윌톤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A,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애우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후 2:00(청년) 수요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3:00(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EM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정영희 담임목사 www.dreamumc.com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구역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토) 오전 10:3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칠로우쉽홀)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12:00 (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한국교회 희망과 조국통일 위해"

고신·고려 통합 감사예배…새시대 고신창출로 하나님 나라 소망

참석자들이 합심기도하고 있다.

지난 9월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교단 통합을 이뤄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예장 고신과 고려가, 6일 낮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통합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감사예배에는 양측 목회자와 장로 및 교인들과 신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선교 130여 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고신총회는, 이번 감사예배에서 "새 시대의 고신을 창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조국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고신총회는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순교로 대처하면서 한국 장로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제26회(1976년) 총회 시에 성경(고전 6:1~10)에 대한 해석 차이로 안타깝게 분열됐다가, 이제 성경 해석이 동일함을 확인했기에 서로 통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한국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공감하고 이번 통합을 이뤘다. 통합된 고신총회는 약 55개 노회 2100개 교회 규모다.

이날 1부 예배는 부총회장 배굉호 목사의 인도, 부총회장 김진욱 장로의 기도, 통합 시 고려총회 서기 이성용 목사의 성경봉독, 서울시민교회 성가대의 찬양, 총회장 신상현 목사의 설교, 합심기도, 고려신학대학원 코람데오중창단의 특송, 통합 시 고려총회 총회장 원현호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교단 통합'(엡 4:1~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신상현 총회장은 "교단 통합 당시의 감동과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지난 40년 동안 분열로 인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있었는데, 이번 통합으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는다"고 했다.

총회장 신상현 목사

2부 축하 시간에는 서기 박영호 목사가 진행과 경과보고, 총회장 신상현 목사가 환영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와 고신총회 직전 총회장 김철봉 목사와 고려총회 직전총회장 천환 목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안기석 종무관이 축사, 고려신학대학원장 변종길 교수가 인사, 사무총장 구자우 목사가 광고를 맡았다.

황수원 대표회장은 "고신총회는 일제 혼돈의 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켜 온, 한상동 목사님을 위시한 여러분의 선배들이 한 뿌리가 돼 설립한 교단"이라며 "고신과 고려가 하나된 것은 900만 장로교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줬고, 앞으로 개혁교회의 기수로서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신상현 총회장이 시무하는 울산 미포교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장학금 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 장학금과 이날 감사예배 헌금을 포함한 약 1,100만 원은, 구고려측 신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의 축제돼야"

루터회 제45차 정기총회…종교개혁 500주년 준비

5일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된 제45차 루터회 정기총회.

기독교한국루터회(루터회, 총회장 김철환 목사) 제45차 정기총회가 '하나 되는 교회'(요17:23)라는 주제하에 5일 경기도 양평군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는 6일까지 계속된 가운데 각 부서 보고 등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김철환 총회장은 인사 및 보고를 통해 먼저 "제45차 정기총회의 주제를 '하나 되는 교회'(요17:23)로 정했다"며 "분열은 패망의 길이요, 하나됨은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된다. 우리 교단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총회 주제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총회장은 총회장 직무 3년차를 맞아 종교개혁 준비 및 선교와 루터대학교 문제 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두 해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10월 29일은 종교개혁 주일이다. 그 날에 진정한 개혁의 사건이 일어나고 개혁의 축제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교회의 목회 환경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일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이미 선교자립위원회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다. 정말 선교라는 일념으로 귀하게 쓰이는 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불행한 평가로 위기에 있는 루터대학교를 반드시 살려내어 더 이상 존폐를 염려하지 않는 작지만 강한, 강소 대학을 만들어 2018년도 마지막 평가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 총회가 종식되고 목회 총회가 되어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회복되는 희망찬 교단으로 혁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홍경만 목사(예배분과위원장)의 집례로 1일 방한한 무닙 유난 의장(루터교 세계연맹)이 설교를 전했다.

이어 성찬집례, 파송식, 홍택주 목사(루터회 서기)의 광고 후 김철환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동윤 기자

"한교연, 동성애·이슬람·과세·교과서 강력 대응"

제4-4차 임원회 열고 결의…새 회기 앞두고 선관위도 조직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회의내용을 설명하고 있더다. ⓒ한교연 제공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 제4-4차 임원회가 1일 오전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동성애 관련 차별금지법과 이슬람 확산 및 종교인 과세 등에 회원교단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81명(출석 27명, 위임 54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원회에서는 TF특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이 결의했다. 회원교단에는 목회서신 등을 보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어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기독교역사정립위원장)는 "현재 역사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우리 자녀들이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가 한 일이 없다는 잘못된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보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제5회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은 정관에 따라 직전대표회장인 한영훈 목사가 맡고, 위원은 대표회장 후보가 나올 나군을 제외한 가·다 군에서 공동회장 6명을 양병희 대표회장이 당석에서 위촉했다.

이 밖에 오는 12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과 대강당에서 제5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표회장의 회비를 현실화하고 특별위원회 정수를 줄이는 등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회기 중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만 공동회장은 지난 9월 장로교 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총회장들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비는 1년에 1백만 원으로 정했고, 공석이었던 법인감사에 김춘식 장로(기성 증경부총회장)를 보선했다.

김진영 기자

"탈북민 중심" 통일 준비 운동의 허브 세운다

세이브엔케이, 제200회 북한 구원 월요기도회서 계획 밝혀

북한 구원 월요기도회가 제200회를 맞아 국회에서 열렸다.

세이브엔케이 주최 '제200회 북한 구원 월요기도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세이브엔케이 이정훈 공동대표의 개회사, 황우여 장로(교육부총리), 황인자 국회의원(새누리당)의 축사, 김성봉 목사(세이프엔케이 감사, 신반포중앙교회 담임)의 기도, 탈북 방송인 김아라 씨의 간증, 이종윤 목사(세이브엔케이 이사장, 한국기독교학술원장)의 설교, 조요셉 목사(물댄동산교회), 이반석 목사(모퉁이돌선교회), 임향자 교장(하늘꿈학교),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 이애란 원장(자유통일문화원)의 연속기도, 세이브앤케이 김범수 사무총장의 비전선포로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이종윤 목사는 "월요일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 있다. 울음은 진실의 표현이며, 진실이 강력한 힘을 분출한다"며 "슬픔과 탄식, 참회와 근심, 각오와 동족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위대한 해방자이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할 때,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브엔케이 김범수 사무총장은 "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불안이 증대하고, 향후 5년 이내 체제 변화 및 통일 예비 단계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한반도 통일 준비 프로그램 및 기금이 증가하면서, 최근 2달 동안 약 2,400억 가량이 모였다. 또한 제이피모건 같은 국제단체들도 차세대 탈북자 창업지원학교 지원에 나서는 등, 통일 및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어떻게 통일 준비를 행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하다. 당장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남한식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되거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 이때 한국에 먼저 온 탈북민들의 북한 지역 내 여론 조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남한 내 탈북민 수는 약 30,0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약 10%인 3,000~5,000명 정도가 탈남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탈북민들의 문화적 괴리 및 사회·체제의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늘리는 것이 통일의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이브엔케이는 탈북민 중심의 통일 준비 운동 허브인 통일리더십 센터(TLC)를 세우고, 탈북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 리더 양성', 탈북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 방과후학습 지원', 탈북 장년층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북한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북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300여 평 규모의 강연 및 문화 공간 '마루'에서 소통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체제가 교체되어 남북 왕래가 가능해지면,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9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한 세이브엔케이는, 11,800,495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유엔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미국 북한인권법 등을 이끌어냈다. 국내 입국 2만 8천여 탈북민 중 약 2,000여 명의 탈북민 구출을 지원했으며, 150여 차례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통해 탈북민과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왔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EM주일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교육부 오전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 7:20 PM(성경 66권책별성경공부)
새벽예배 :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롬12: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염**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연합 새벽기도 오전 6:00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1:5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HEALTH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소금1병 미네랄 회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회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소금1병 미네랄 회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음.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혀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척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싸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트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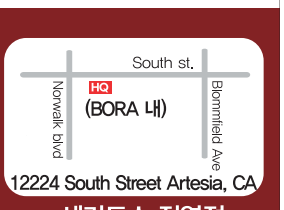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외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광 몰내)
LA 본점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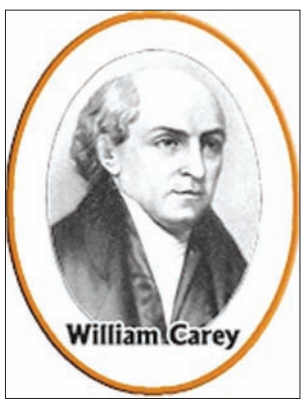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개신교 선교 인물사(2)

윌리암 케리(William Carey,1761-1834)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인물들을 현대 선교의 역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의 선교전략 연구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윌리암 케리
(William Carey, (1761-1834)

영국 목사의 아들로 노스햄프턴(Northampton)에서 태어난 윌리암 케리는 그가 18살이 되는 1779년, 한 기도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2-13절 말씀("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을 심령 깊이 영접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리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1785년에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가 되어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네덜란드어, 불어를 공부하였는데, 이는 훗날 인도에서의 사역 시 성경 번역 에 큰 도움이 되었다.

1792년 봄, 그는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관한 연구'('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s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라는 소책자를 통하여 세계 선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당시 이 소책자는 루터의 '95조항'('The Ninety-Five Theses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 & original Latin: 'Disputatio pro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과 함께 선교적 열풍을 전 유럽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소책자를 펴낸 후, 영국 노팅검 (Nottingham)에서 개최된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윌리암 케리는 이사야 54장 2-3절로 설교를 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 다음날, 감동을 받은 목사들과 함께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Baptist Missionary Society, BAM)가 되었으며, 윌리암 케리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 및 후원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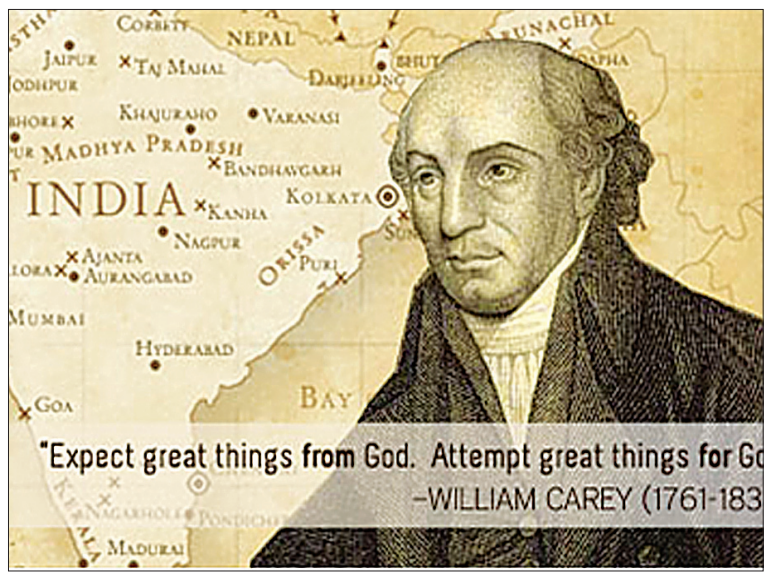
윌리암 케리는 인도의 선교사로서, 41년간 인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현대선교의 훌륭한 모델을 이루었다.

그는 인도에서 사역한 41년 간, 6개 국어(인도 방언)로 신,구약 성경을 완역하였고, 29개 방언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였으며, 5개 언어(방언)의 사전을 만들었으며, 문법책을 발간하였다.

100개 이상의 시골학교를 세웠으며, Sorampore College(후에 아시아 최초의 대학이 됨)의 설립과 인도 최초의 신문을 발간하였으며, 상호 신용금고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티(Sati,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죽은 남편의 아내를 산채로 화장해서 죽이는 관습)를 폐지시키는 등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벵갈지역의 콜카타(구 켈커타) 소람포어에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윌리암 케리의 마지막 고백이 적혀 있다.



윌리암 케리는 인도선교의 아버지,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린다.

"1761년 8월 17일에 태어나서 1834년 6월 9일에 죽다. 비천하고 가난하며 벌레같이 보잘것 없는 자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다."

윌리암 케리는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했던 자료들을 화재에 잃었고 7년간 한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도 선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죽기까지의 헌신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도선교의 아버지'이자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커다란 족적 (足跡)을 남겼다.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런던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우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 공회 등이 창설되도록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세계선교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윌리암 케리의 삶은 욥의 고백이 이루어진 삶으로 볼 수 있다("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현재 인도에도 GMI 신학교가 개교했다. 이러한 신학교들을 통해 윌리암 케리와 같은 수많은 헌신자들이 많이 나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한다. 아멘!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한국 의료선교사 중 마지막 생존자 소천
전주 예수병원 데이비드 추 선교사(1923-2015)

데이비드 추 선교사

전주 예수병원에서 봉사하며 한국 심장내과 영역을 개척한 선교사 데이비드 추(Dr. David Chu, 주보선) 박사가 지난 9월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 자택에서 향년 93세로 소천했다.

전주 예수병원을 섬긴 외국인 의료선교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데이비드 추 박사는, 마지막까지 한국과 예수병원을 위해 기도했다.

텍사스 베일러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였던 주보선 선교사는 1967년부터 1986년까지 20여 년간 한국에서 봉사하며 심장내과 영역을 개척했으며, 심장초음파학과 인공심장박동조율기를 소개하고 처음 시술했다.

추 박사는 2일 안장됐으며, 3일 오전 콩고드에 있는 프라비던스 장로교회에서 장례예배가 거행됐다. 예수병원은 미국 현지 장례예배에 이광영 기독의학연구원장을 비롯한 조문단을 보냈다.

◈숨은 영웅, 주보선 선교사

주보선 선교사는 1923년 중국에서 태어나 상해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고국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중국 의료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하고, 미국 텍사스 베일러 의과대학에 입학해 심장내과 전문의가 됐다. 의대 실습 도중 간호대 학생이던 10살 연하 게일(Gail)을 만나서 결혼도 했다. 게일은 그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은 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보선 선교사와 결혼했다.

중국으로 선교를 희망했던 그는 중국의 공산화로 불가능해지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다, 한 집회에서 외과 전문의인 David John Seel(설대위 선교사, 당시 예수병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집회 후 설 선교사를 찾아가 한국 상황을 듣는다. 그는 곧바로 한국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1967년 한국에 도착해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한 그는 정년인 1988년까지 한국에 있었다. 그는 한국 최초 심박동기 시술 등으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겸손'과 '신실'의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한다. 명예와 업적보다, 매주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시행하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주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예수병원은 당시 매년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며, 지금도 매년 200여 명의 환자들이 구원받고 있다. 가장 많은 환자들이 영접한 해는 주보선 선교사가 사역하던 1982년으로, 총 2,029명이었다.

열심히 사역하던 주 선교사는 1980년대 초 아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리에서 골육종(osteosarcoma)이 발견됐다. 골육종은 지금도 발견 즉시 절단이 권장되는 악성종양이다. 그는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미국으로 가 아들의 한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아들을 장인·장모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장인에게 뇌졸중이 발생해 한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미국에서 남아 아이들과 장인·장모를 돌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부르심을 좇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한 끝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어 1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후에도 늘 그랬듯 성경공부와 기도모임, 전도와 진료에 꾸준히 힘썼다. 예수병원에서 사역하던 대부분의 장기 의료선교사들은 원장을 맡아 섬겼지만, 그는 한사코 이를 거절한 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했던 성경공부와 기도, 전도와 진료만 묵묵히 해나갔다. 정년을 맞이해 미국으로 돌아간 후, 그는 기념사업을 위한 한국 재방문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사람들의 영광과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작은 상급만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딸 하나와 아들 셋을 두었으나, 아들 한 명을 사역기간 중 잃고 지금은 세 명의 자녀가 있다. 딸은 심장내과 전문의와 결혼해 옆집에 살고 있으며, 아들 한 명은 아버지의 소원이던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다.

이대웅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126학점
2. **신학 대학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3.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1년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러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 월 12일
봄 학 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 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 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챤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챤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앎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KONICA MINOLTA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454e	C364e	C284e	C224e	Dual Scan ADF	Dual Scan ADF				
Colour B&W 55/55 ppm	Colour B&W 45/45 ppm	Colour B&W 36/36 ppm	Colour B&W 28/28 ppm	Colour B&W 22/22 ppm	160opm Duplex	80opm Simplex	Emper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무슬림과 결혼하려는 이들에게 드리는 글

2013년 기준 약 8천여 명의 한국인 여성들 무슬림과 결혼

부모에게 실망한 자녀 무슬림 남자와 결혼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이슬람은 남녀평등 인정안해

무슬림 남자들은 언제든지 아내와 이혼할 권리 있어

무슬림 남성과의 결혼 신중해야

유 해 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권면

얼마 전에 인천에서 한 권사님이 사무실에 오셨다. 외동딸이 곧 사우디아리비아의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놓고 조언을 들으러 온 것이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대전의 한 교회에서 강의를 마쳤을 때, 한 자매가 아랍에미리트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주일에는 강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다. 그분은 우주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한 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이었다.

한 주 안에 무슬림과의 결혼에 관계된 세 사람을 만나면서, 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한국인 여성의 약 10-14%가, 남성의 약 10%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 2013년까지 약 8천 명의 한국인 여성들이 무슬림과 결혼했다. 필자는 지난 25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중동·영국·한국에서 무슬림과 결혼하여 사는 기독인들을 만나 보았다. 지금부터 무슬림과 결혼하려는 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1. 무슬림과 결혼하려는 몇 가지 이유

1) 나와 다름에 대한 매력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에게 끌리는 이유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의 발음과 외모에 매력을 느낀다. 또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경험한다는 점에 끌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그 다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중매결혼과 연애결혼 가운데 중매결혼의 이혼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매는 서로의 수준과 문화를 고려하여 이어 주지만 연애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화적·종교적 차이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수 있다.

2) 반항심

필자는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 부모님께 실망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여성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또한 군목의 딸로서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반감을 품고 이슬람으로 개종, 무슬림 남자와 결혼한 여인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무슬림을 향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은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외로움과 결혼에 대한 압박

일부 기독교 여성들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과 외롭다는 이유로 무슬림에게 끌린다. 혹은 "눈앞에 있는 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혼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을 느낀다. 그러나 배를 놓칠 수 없어 무슬림과 결혼한다는 사람은, 후에 자신이 타이타닉에 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절대 늦지 않으신다.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슬림 배우자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4) 복음 전파 목적

필자가 상담한 기독교인 여성들 대부분은, 배우자가 될 무슬림 남성이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약속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렇다면 개종한 뒤에 결혼을 하면 된다. 어떤 여성들은 상대에게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 후에 그를 믿음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이에 대해 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고전 7장 16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 무슬림과의 결혼 이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

1) 기독교인으로서 무슬림 자녀를 낳아 줄 수는 있는가?

꾸란 2장 221절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만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꾸란 2장 6절에 의하면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 그리고 '성서의 백성들'과 결혼할 수 있다. 여기서 '성서의 백성들'이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슬림 남성들은 무슬림·유대인·기독교인 여성과만 결혼한다.

한국에는 유대인 여성도, 결혼 적령기가 된 무슬림 여성도 거의 없다. 결국 한국에서는 무슬림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기독교인 여성 뿐이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주민등록에 종교란이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서 기재된다. 이것이 이슬람 국가의 정책이다. 기독교인 여성이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하면 무슬림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무슬림 자녀를 낳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태어나기 전 4세기 동안, 중동은 찬란한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중동의 인구 중 90% 이상은 무슬림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중동이 이슬람화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슬림 남성들이 기독교 여성들과 결혼하여 무슬림 자녀들을 낳은 것이다.

2) 결혼 뒤에 숨긴 의도들

AD 846년 지리학자 이븐 후르다드비(Ibn Khurdadbid)가 쓴 '도로 및 왕국들 안내서'(Kitab al-masalik wal-mamaik) 속에서 신라에 관한 글을 찾을 수 있다. "중국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금이 풍부하다. 이슬람이 이 나라에 상륙하면 그곳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영구히 정착하고, 떠나려 하지 않는다." 이는 약 1,2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현재도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은 정착하여 살고 싶어한다. 많은 무슬림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을 통해 귀화하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도덕적 딜레마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거짓말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이슬람의 대학자인 알 가잘리(Al-Ghazzali, 1058-1111)는 "거짓말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거짓말이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허용될 수 있다. 만약 진실이 불쾌하고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람에서 여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교리는 본래 시아파의 이함(Iham: 위장, 기만)이라는 교리였는데, 수니파에서도 타끼야(taqiyya)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무슬림과의 결혼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가?

이슬람에서의 남자는 여자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꾸란은 "남자에게는 여자의 두 배가 되는 몫을 주어야 한다"(꾸란 4:11; 4:176)고 말한다. 무함마드의 언행록(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한 여자의 증언은 한 남자의 증언의 절반과 동등하지 않느냐?" 여자들이 답했다. "그렇습니다." 무하마드는 말했다. "이는 여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들은 이슬람에는 남녀 간 평등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준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속한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4) 여성에 대한 대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여성이 학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꾸란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내가 신실하지 않거나 행실이 불량하다면 먼저 책망하고, 그 후엔 잠자리를 거부하며, 마지막으로는 가볍게 때려라"(꾸란 4:34). 여기서 말하는 "가볍게"라는 단어가 아랍어 꾸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인 무슬림 번역자가 추가한 것이다. 아랍어 원어에는 "때려라(idribuhunna)"라고 기록됐다. 이슬람에서 '불순종하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무함마드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아내는) 왜 때리느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성적인 요구를 채워 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무함마드가 말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동침할 것을 권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오기를 거부하면, 천사들이 아침까지 그녀에게 저주를 보낸다." 또한 이슬람에서 무슬림 남자는 언제든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아랍어로 탈라크(Talaq)라고 한다. 이혜훈 전 국회의원에 의하면, 무슬림과 결혼했다가 가정폭력 등 어려움으로 남편을 떠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 중 93%는 기독교인이이라고 한다.

5) 남자가 절대적 지배자이다

이슬람 학자인 이맘 가잘리(Ghazali, 1058-1111)는 무슬림의 결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결혼은 일종의 노예제도이다. 여성은 남성의 노예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이다. 죽음의 순간에 자기 남편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여성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기독교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슬람에서 남편은 주인이다. 머리와 주인은 다르다. 머리는 리드하나, 주인은 명령한다. 머리는 다른 일원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조하나, 주인은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으며 언제나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머리는 비록 리드하기는 하나, 신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바라본다. 반면 주인은 자신을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여긴다. 이슬람에서 남편은 모든 일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다. 여성은 의무적으로도 그녀의 남편을 따라야 한다.

필자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슬림과의 결혼에 대하여 신중하라고 권면하지만, 이미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동시에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도 결혼생활을 이어가라고 권면한다(고전 7:12-14).

만약 무슬림과 결혼했고 그가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이혼하려고 하지 말라. 사실 성경은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해야 한다(베드로전서 3:1-2)고 가르친다. 또한 당신은 남편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외적인 치장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벧전 3:3-6)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들은 무슬림 남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는 장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용서하고, 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 뿐이다.

풀러신학교가 10년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700명을 상대로 개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첫째로 기독교인들의 영적이고 이타적인 삶에 감동을 받았고, 둘째로 꿈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오순절 같은 치유적 신비를 경험했으며, 셋째, 이슬람에 회의를 느꼈다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종교란 무엇인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 사월의책 | 184쪽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저자는, 종교란 결코 완성된 것도 변치 않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교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생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따라서 교리의 불변성에 매몰되는 것은 새로운 야만을 가져오고 종교적 삶을 질식시킨다. 인간이 갖는 종교적 경험의 독특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명료하게 말한다. 저명한 연구자가 번역을 맡고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우사 김규식 평전

김삼웅 | 채륜 | 391쪽

독립운동과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우리나라 인물들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우사 김규식의 삶을 돌아보고,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을 재조명한다. 그는 임시정부 부주석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지만, 분단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남북협상과 좌우합작을 외쳤다.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저자는 김규식의 삶을 '광이불요(光而不耀)', 즉 빛이 나지만 지나치지 않았다고 표현한다.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오대원 | 예수전도단 | 136쪽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저자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책으로, 13년 만의 개정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고, 시효가 지난 자료들을 수정 및 삭제했다. 개정판 저자 서문과 후반부 두 개의 장을 추가했다.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나 느낌, 감정 혹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것임을 역설한다.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김은성 | 생명의말씀사 | 224쪽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국내 1호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저자는 소통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소통의 대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소통 사역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당신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하나님을 만났어도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도 기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로 인한 이기지 못할 기쁨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기독교이다. 그 기쁨으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신앙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얼굴에서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단 말인가?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의 '빌립보서 강해'는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빌립보서1)
화종부
두란노 | 276쪽

이 책은 기쁨을 잃어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기쁨의 서신서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다.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바울은 뜻밖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전하고 있다. 그에게는 감옥이라는 장소가 모든 것이 차단되고 단절된 장소가 아니고, 복음의 빛줄기가 새롭게 트일 확신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를 믿고 신뢰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권면과 소망을 담은 이 서신이 이토록 반가운 까닭은, 오늘날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작은 서신을 통해 발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저자가 남서울교회에 처음 부임해 주일강단에서 전한 빌립보서 설교를 엮은 것이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 넘는 한 몸 된 교제를 나눈 것처럼,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시 결코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일에 함께 하자고 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2015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백—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와 "전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것처럼
성도들은 영적리더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리더가 되십시오

일자
2015년 11월 9일(월 저녁)~13일(금 오전)

강사
크리스 해리슨 목사 _ 깊은 기도와 말씀사역의 내적치유 강사
이영환 목사_ 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는 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고승희 목사_ 중보기도로 가정을 회복하는 LA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나의 기도의 삶" 특강
영희 맥도널드 목사_ 예수님과 동행하는 덴버 교도소 채플린
박신일 목사_ 기도로 꿈을 이루어가는 목회자(밴쿠버 그레이스한인교회)
박헌승 목사_ 금식과 철야로 영적설교를 하는 목회자(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성현경 목사_ 기도로 시대를 보는 목회자(뉴저지 가스펠휄로십교회)

장소/ 밴쿠버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12969 Crescent Road, Surrey, BC V4P1J8 Canada
밴쿠버 도착: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YV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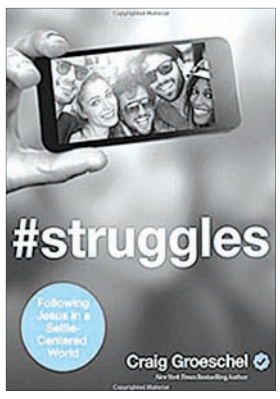
등록문의
admin.ictc@gmail.com
Katalk/ prayingforspain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re
후원 : 기독일보

소셜미디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정말 괜찮을까

소셜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삶

소셜미디어의 위험성 지적과 그 해결책 제시



#Struggle
Craig Groeschel

2015년 8월 24일 페이스북의 하루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했고, 전체 이용자 수는 14억 명 이상이 됐다. 트위터(twitter), 미투데이(me2day), 핀터레스트(Pinterest) 등, 소셜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삶이다. 인터넷 시대의 윤리, 자기성찰, 인간관계, 시간관리, 영성 등이 정리도 채 되기 전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이 시점에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와 기독교인의 삶을 다루어 주면 좋겠다는 차에, 크레이그 그로셀(Craig groeschel) 목사의 책 '#Struggle'이 출판됐다.

제목처럼 본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는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기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성경 앱은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과도 같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 없이 못살겠다고 느끼는 상태라면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그는 '#Struggle'이라 일컫는다. (#표시는 해시태그로, 소셜미디어 내에서의 검색 기능을 의미한다. # 뒤에 글이나 단어를 쓰면 그 단어나 글이 검색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소셜미디어의 위험은 다음의 여덟 가지 주제로 나뉜다. 첫째, 만족의 문제(비교의식), 둘째, 친밀감의 문제(규정하기 어려운 관계), 셋째, 진실성의 문제(꾸밈을 통한 불투명성), 넷째 연민의 문제(고통에 둔감하게 됨), 다섯째, 순수함의 문제(오염된 것들에 노출됨), 여섯째, 격려의 문제(격려보다는 비판과 비난이 지배적), 일곱째, 예배의 문제(셀카 등 자기 중심성) 여덟째, 쉼의 문제(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함) 등이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첫째 만족의 문제에서, 저자는 두 여인의 대화를 꺼낸다. 한 사람은 전업주부이지만, 한 사람은 워킹맘이다. 워킹맘은 전업주부의 포스팅을 보며 자녀에 정성을 다하는 그녀가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전업주부는 워킹맘에게 일하는 그녀의 포스팅을 보며 샘을 냈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만족을 내 실제의 삶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좋아요' 개수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불만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저자는 이처럼 소셜미디어로 인해 비현실적 불만족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것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둘째 친밀감의 문제에서, 전자기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지 이점을 먼저 이야기한다. 분명 그것들은 먼 거리에 있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이 관계 그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서로의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 이상의 실제적 상호교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신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빠르게 타이핑하여 생일 축하 메세지를 보낼 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친구'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단어를 친밀감이 아닌, 단지 접속자를 일컬으며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친밀한 친구가 '없다'고 말한 사람이 25%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인터넷 친구들을 사귀는 이유는 즉각적인 반응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사실상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나님도 하늘에서 사랑을 외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만남이 주는 유익은 말로 다할 수 없다(저자의 개인 경험을 포함한 그 유익은 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사진으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만들어 낸다. 이것은 감정과 상황을 속이는 것일 수도, 문자 그대로 얼굴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만연한 소셜미디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정직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밝히자면 '침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지만, 모든 진실을 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굳이 거짓을 포스팅하는가! 끊임없는 과장과 필터링을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저자는 몇 가지 실제적 제안을 하는데, 필자가 무릎을 탁 친 제안 하나는 이것이다. "Try not to care so much about what people think(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쓰지 마세요)."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 주로 새겨야 할 충고가 아닐까?

넷째, 소셜미디어는 연민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의 열풍에 불과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 코니 2012, 나이지리아 납치사건, 아이스버킷챌린지 등 어느 새로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문제는 마치 더 이상 중요치 않다는 듯 너무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없다. 사실상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연민이 아닌, 연민에 관심갖는 척하는 나 자신에게 신경을 쓰게 만든다. 즉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거리 문제이다. 우리는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손쉬운 포스팅이 아니라, 실제 내 시간과 몸을 희생하는 봉사가 참된 연민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이 했던 일이기도 하다.

다섯째, 저자는 직접적으로 말한다. 우리 모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르노에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자는 포르노 시청은 죄라고 믿지만, 성인 남자의 2/3, 성인 여성의 1/2은 그것을 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정해야 한다. 저자는 자신의 결단을 되새김으로써 그 경계를 정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마음, 결혼, 소명을 무너트리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샬롬을 잃고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한다면 그 또한 오염되는 것이다.

여섯째, 유명한 아만다 토드의 자살 사건을 저자는 먼저 상기시킨다. 그녀에겐 위로가 필요했지만, 그녀에게 달린 댓글이란 "I hope she's dead"였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실제로 목숨을 끊는다. 저자는 이러한 아만다 사태가 결코 소셜미디어 세계에서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십거리에 집중하는지! 그런 것에서 우린 돌아서야 한다.

한편, 우리 역시 가십거리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 어찌 보면, 가십거리는 일종의 박해이다. 왜냐하면 가십은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의롭다면, 도리어 그러한 가십거리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또한 저자는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라고까지 한다!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저자는 우상숭배 문제를 다룬다. 사실 이해가 안 된다. 갑자기 우상숭배/예배 이야기라니. 그러나 저자는 질문한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차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우리의 음식이나 TV나 핸드폰으로, 나아가 바로 소셜미디어로 우리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은 수많은 뉴스피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문화와는 달리, 예수는 자신을 부정하라고 명령하신다. 사람들이 우리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무엇을 보게 될 것인지 저자는 묻는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바로 쉼의 문제이다. 노모포비아(nomophobia)라는 말을 저자는 소개하는데, 이는 바로 핸드폰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저자가 밝히길, 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자의 84%가 핸드폰 없이 당일 여행을 갈 수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쉬지 않고 밤낮 없이 핸드폰을 붙잡고, 괜시리 할 일이 없을 때도 핸드폰을 켠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영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모든 것이 차단되어 충분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독방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단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권한다. 단 5분(필자는 피식 웃었다. 얼마나 우리를 못 미더워하면 5분일까?)! 사실 저자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로부터의 영혼의 쉼을 위해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은 본서에서 직접 찾아 보면 좋을 것 같다.

내용 외에도 저자는 본서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한 편집기술을 보여주는데, 장의 시작마다 메세지 창의 레이아웃에 누군가의 생각을 적는다든지 혹은 내용 중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실제 사례의 풍부함이다. 많은 사례를 인용하지 못했지만, 저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다. 흥미롭게도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십계명과 소셜미디어 중독을 피하기 위한 자가진단(그중에는 아이폰 세팅까지 있다)이 부록으로 있다.

필자의 페이스북은 이미 삶 속 하나의 큰 부분이다. 실제 페이스북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자의 지적에 뜨끔할 만한 일도 많이 한다. 소셜미디어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이 유익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창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결심만큼은 다시 하게 된다.

특히 페이스북은 광고나 자기 과시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그런 듯하다. 과연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지 않은 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저자의 책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어쨌든 필자는 본서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거의 처음으로 선보이면서도 매우 탄탄한 신앙서적이라 생각하며, #모든_소셜미디어_이용자에게_일독을_권한다.

◈저자 소개

크레이그 그로셀(Craig groeschel)은 LifeChurch.tv(온라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회 겸 인터넷 교회이다)를 개척한 담임목사이다. 그가 지은 다른 책으로는 「Fight: Winning the Battles That Matter Most(싸워라, 넥서스 CROSS)」, 「The Christian Atheist: Believing in God but Living As If He Doesn't Exist(크리스천 무신론자, 비전북)」 등이 있으며, 「#Struggles Study Guide」가 책과 CD로 각각 출간 예정이다.

서평자·번역자 진규선 목사

저자는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은 수많은 뉴스피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대리점 모집

젊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재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새제거,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새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새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돌】
밥 지을 때 밥솥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작은 량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새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굼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에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텐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감마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굼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가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냉장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 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데오 갤러리아)
Tel:323)316-681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팩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렌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FDA IND임상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nd St.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혹,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윈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 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Alex Shin Fleet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For delivery subscription,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 www.christianitydaily.com | THURSDAY, October 8, 2015 Vol. 25

Korean Churches of Orange County Invest in Leaders of the Future

BY JUNHYEONG KIM

Korean churches of Orange County gave scholarships and began a leadership network with Assemblywoman Young Kim to build up th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CKCOC) gave scholarships to 31 high school students and 31 college students at an awards ceremony on October 3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Each student received $500 each, amounting to a total of $31,000 given to all of the 62 recipients. Kim was also present at the awards ceremony, and all recipients were given a "Next Generation's Leaders" award.

The CKCOC didn't stop at simply giving scholarships to the students, however, and also launched a leadership network with Young Kim. Students who received scholarships this year will become the first class to be a part of the network, and those who receive these scholarships in the future will be qualified to be members of this network as well. Members will be able to receive leadership training and mentoring from Kim.

"This scholarship not only carries the monetary value, but also the prayers of all of the pastors who are gathered here and their churches," said Kim. "I hope you are encouraged by their love, and that you will continue to grow to become much needed leaders of our society."

"We can't stop at just giving students a one-time scholarship, but invest in them to help them grow into true leaders in the long run," said Reverend Ki-Dong Kim, the president of the CKCOC. "We believe the experience of uniting with other peers through this network and receiving training from a Korean American politician will significantly help in developing their leadership skills."

Churches, church associations, business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Orange County region readily contributed to the scholarship fund for these students. Nachimban Church gave $6,500,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nd Sa-Rang Community Church gave $5,000 each, and Choong Man Church and Calvary New Life Church gave $1,500 each. OC1 Church, Vision Community Church, Irvine United Mission Evangelical Church, Southern California Full Gospel Church, Joy People Church, Disciples Church, United Breakthrough Ministries, Ends of the Earth Church, Immanuel Fellowship Church, Logos Church, Orange County Older Pastors Association, and Orange County Elders Council, gave $500 each. PNS Korean Directory of Orange County gave $1,500, Gateway Academy gave $1,250, and Orange County Korean-U.S. Citizens League gave $250. Several elders and members of the board of the CKCOC contributed to the fund as well.

The Next Generation Leadership Scholarship is a ministry that was launched together by the CKCOC and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CKCSC) in 2013. At the time, the two Councils fundraised for and awarded the scholarships together. However, in 2014, the two Councils held the award ceremony together but fundraised separately, awarding the scholarships to students in their region according to the separate amounts that they fundraised. This year, only the CKCOC hosted the scholarship.

Some 2,000 people gathered to pra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t the recent Wailing Prayer Meeting that took place at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on Sunday.

Reunification "In God's Way, God's Time"

Prayers Extended for People of North Korea; Refugees Share Stories

BY RACHAEL LEE

Placards and posters of the starvation, persecution, and harsh living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people lined the halls of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on Sunday evening, leading to the entrance of a gathering of some 2,000 people praying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is a freedom from slavery," said Reverend Paul I. Kim, the lead pastor of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and one of the organizers and speakers of the event, called "The Wailing Prayer Meeting." "That's why we need to ask the Lord for this with tears. And it will happen in God's way. His ways and thoughts are higher than ours."

Sunday's meeting was the 49th "Wailing Prayer Meeting," a Korean prayer gathering hosted by the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and Until the Day Mission. It was started in 2004 with some 1,500 pastors in the first meeting in Los Angeles, and has continued each year since, taking place in various regions this year including Dallas, Detroit, Washington, D.C., and Denver.

The thought that reunification cannot come by human means or methods, but in God's way, was one that was shared and repeated by all of the ten pastors that spoke or led prayer during the evening. Many of them referred to the prayer meetings that took place in St. Nicholas Church in Leipzig that led up to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saying that just as reunification in Germany came in an "unexpected way," God would bring reunification to Korea in His own way.

Six refugees were also present at the meeting and shared brief testimonies of how they escaped and how they came to the Christian faith. Accounts of crossing the Tumen River, of families that have been tortured and killed, of wanting to die because of excruciating hunger were shared. Many shared that they were led to pray and met the Lord during their most difficult and painful situations while trying to escape from the regime.

"I know that this story is similar to so many people in North Korea," shared one refugee who was sex trafficked upon escaping to China and whose family members left in North Korea were tortured and killed. "Please continue to pray for those in North Korea, the refugees, and the families of the refugees."

This year in particular, the organizers focused on praying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Korea, placing significance on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divided for 70 years now -- the same amount of years during which Israel was exiled before returning to Jerusalem according ro the Bible.

"For 70 years these people have been suffering," said Reverend Peter I. Sohn,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 Coalition. "We need to ask that God would not delay in bringing peaceful reunification to Korea."

"Our brothers and sisters are naked, beaten, starving, and living like animals," said a joint statement by the organizers of the prayer meeting.

"We believe in God's power. Just as Israel was restored, and just as Germany was reunified, we believe God will bring reunification in His own way for Korea," the statement continues. "This is why we come and pray, and until that day, we will continue to pray."

"Lessons on Leadership" in the Asian Context

BY RACHAEL LEE

Following the first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AAMC) hosted by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in 2014, the school is hosting its second such conference this year on the theme, "Lessons on Leadership," from November 6-7.

The conference, specifically hosted by the Asian American Ministry cohort of the Doctor of Ministry program at Talbot, will be focusing on how Asian Americans can be leaders in three main areas: in the home, in the church, and in the workplace.

"Asian Americans today are leading their own church plants, leading ministries within immigrant churches and mega-churches, and even being invited to lead relatively large multi-ethnic churches," said Dr. Benjamin Shin, the director of Asian American Doctor of Ministry cohort at Talbot. Asian Americans are also increasingly found in government positions, and gaining more attention on the media through certain Asian American actors and TV series focused on the Asian American stor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more Asian Americans may be emerging as leaders, there are not enough opportunities for these leaders to be trained, Dr. Shin said.

"We just want this conference to be a service for those people who need training, or want to give training, but can't," Dr. Shin said. "Many people have a hard time juggling so many things just for the local church that the last thing that comes to mind for a lot of them is training. We want to provide this place for training so all they have to do is to bring their people."

"We want to explore how Asian culture mixes in and balances with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leadership," said John Shin, an adjunct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Biola University. "From a pastoral perspective, I hope through the conference, young leaders could wake up to the areas that they need development in."

Last year's AAMC was focused on the theme, "Mentoring for a Lifetime," and discussed how Asian Americans can mentor and receive mentorship.

The conference will begin with a session on Friday night on choosing the right elders and deacons led by Dr. Alexander Strauch, who has written numerous books on elders and deacons, including *Biblical Eldership: An Urgent Call to Restore Biblical Church Leadership* and *The New Testament Deacon: Minister of Mercy*. Many of his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 Korean and Chinese, and Strauch himself has also visited Korea and China multiple times to speak.

"There is no one in the Asian American realm yet who has written as much as [Strauch], has had as much experience as him, or is able to speak on the topic like him," Dr. Shin explained.

"In our conversations, he brought up exactly the types of issues that I would've wanted to address at an Asian American conference," he added. "He's very contextual and we'll have much to learn from him."

Saturday's portion of the conference includes three different tracks of plenary sessions and breakout sessions, each track exploring what it means to be godly leaders in the home, in the church, and in the workplace.

Some of the speakers on Saturday include Rev. Cory Ishida, the senior pastor of Evergreen Baptist Church, who will be speaking on godly fatherhood; Dr. Joanne Jung, an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t Biola University, who will be speaking on godly motherhood; Brian Chan, the CEO of Liferay, who will be speaking on leadership in the marketplace; and Drs. Jeff and Stephanie Kim, both of whom who have had experience in positions of leadership in the education system, who will be speaking on being "lights for Christ" in education; among others.

For more information, visit aace.link/conference.

What's Happening in SoCal?

Upcoming event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October 9: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will be hosting a seminar called, "Raising Up Christian Leader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Era." Dr. Suzanne Scholte,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nd president of the Defense Forum Foundation, will be featured as one of the speakers, alongside Reverend Hee Min Park, the former senior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and others. The seminar will discuss how young people can be built up and used for God's plan for Korea. From 8 PM to 10 PM at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October 17: Korean American Christian Mission (KCM) will be hosting a "Gospel Renewal Night" featuring Reverend Harold Kim, the lead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s the main speaker. The event is an inter-campus event, and some 400 to 500 students are expected to attend, making it one of the largest inter-campus events hosted by the ministry. From 6 PM to approximately 9 PM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d, Brea, California, 92821).

A Korean worship event called Kingdom Dream Concert will also be taking place on October 17, with Reverend Kwan-Woong Cheon, the senior pastor of New Sound Church in Seoul, and New Generation Worship, a Korean worship band. The "Kingdom Dream" movement began in Korea in 2011. Ten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 in the Kingdom Dream worship conferences that take place in seven different cities in Korea. Over 7,000 people dedicated themselves to become missionaries through Kingdom Dream, according to organizers. The event in Los Angeles will take place at 2 PM at the Belasco Theater (1050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

October 29: The Han-Schneider International Children's Foundation (HSICF) will be hosting its 7th annual benefit dinner and silent auction themed, "It Takes a Global Village." HSICF is a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food and/or education to children in Cambodia, Tanzania, and North Korea. The organization was started in 2007 by Sang Man "Sam" Han, who was orphaned in Korea and later was adopted by an American family, allowing him to grow to eventually become a successful businessman. The semi-formal benefit dinner and auction will begin at 7 PM, and will take place at the Taglyan Cultural Complex (1201 Vine St. Hollywood, CA 90038).

November 6-7: The second annual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AAMC) hosted by Biola's Talbot School of Theology will be taking place. For more information, see article "Lessons on Leadership." From 7 PM to 9:30 PM on Friday, and from 9 AM to 9 PM on Saturday at Biola University (13800 Biola Ave, La Mirada, CA 90639).

November 11: "A Line in the Sand" Prayer Movement will take place for the third time. A multi-ethnic prayer meeting that began in 2011, A Line in the Sand is an all-day event that is dedicated to praying for the nation. Prayer portions are led by Christian leaders of different ethnic groups throughout the day. Exact place and time to be announced.

IVY DREAM

대입전문 프리미엄 컨설팅 아이비드림

아이비드림은 소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진학컨설팅 그룹입니다.
대학진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1대1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며
학생이 최상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비드림이 제공하는 컨설팅은 일반적인 학원의 컨설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모든 컨설팅은 이정석 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정석 박사 약력

- 하버드 물리학 박사
- UC 버클리 학사
- 미주 한국일보, 미주 중앙일보, 한국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미주 H&S TV "K타운 투게더" 미국 대학 입시 방송 (2014~현재)
- 미주 라디오 방송 "우리 방송" 대학입시 방송 (2015~현재)

입시전략 코치 프로그램 Admission Strategy Coach Program

아이비드림의 입시전략코치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꾸준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각 개인에 맞는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대학 입시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정석 박사가 체계적으로 직접 도와드립니다.
목표 대학 설정부터 여름 방학 계획, 시험 계획, 리서치 포지션 찾는 부분까지도 도와드립니다.
명문 대학 입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대입원서 및 에세이 준비 프로그램 College Application Service

에세이를 비롯한 입학 원서를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의 상황에 맞게 원서와 에세이를 전략적으로 만듬으로써 학생의 성적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으며 아이비드림은 이를 증명하듯 매년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이비드림의 대입원서 준비 프로그램은 단순히 에세이 작성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장점은 보다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며 에세이를 포함한 원서 준비의 모든 과정을
완벽한 전략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학생의 목표가 어느 대학이든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정석 박사가 최상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직접 전략을 만들고 원서와 에세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대학편입컨설팅 Transfer Consulting Program

아이비드림은 미국 대학 편입을 위한 모든 사항들을 상담하고 도와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 미국 명문대학으로의
편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공선택, 과목선택, 원서작성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명문대학으로의 편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비드림 컨설팅 결과

- 32%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
- 45% Top 15 대학 합격
- 74% Top 25 대학 합격
- 97% Top 50 대학 합격

학생들이 보내준 Testimonials!

My parents started dancing and calling everyone hehe :) It's all because of the time and effort you spent on counseling me that I got accepted to UPenn, I'm so thankful to you for the UCLA research opportunity and the Science Olympiad idea you found for me, and the encouragement you gave me to take harder classes.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with all the college essays and applications and putting in time to look over them, I am truly indebted to you and am so grateful! ! – Ms. Park

선생님 저 유펜 합격 됐습니다~!!!!!ㅜㅜ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ㅜㅜ
에세이가 정말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ㅜㅜ
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저 유펜 합격됐어요~!!!!!ㅜㅜ
– Mr. Kim

Cornell! accepted me!!! I am soooo thankful~~~~!!You definitely helped me through the whole application process and made it 309583 times easier for me than for all my friends who didn't have a college counselor! Gosh I'm so relieved, I can finally breathe normally again! I feel like I've been holding my breath for the past month! Thank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college! – Ms. Woo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all the effort and time you put into me. Your constructive criticism and words of genuine encouragement really made the difference in this difficult, rigorous college admissions process. Another area that I received great help in was interviews. In this admissions process, I think the interviews played a large role in my gaining acceptances in the top universities. I still have that extremely long e-mail you sent me a while ago with all the questions and the advice on how to handle an interview, and in using those, I was fully prepared for whatever the alumni had to ask. If you notice at the bottom, I gained acceptanceto Princeton and Yale. I can honestly say that I had the most fun with these interviewers. Not only was I really relaxed, but the conversation flowed smoothly. Both interviews were just great experiences. THANK YOU SO MUCH MR. LEE! – Mr. Kim

I GOT THE ACCEPTANCE LETTER FROM POMONA COLLEGE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THROUGH THIS PROCESS!!!!!!!!!!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get into Pomona!!!!! You are awesome! And you said that you were harsh or critical in your email but I think I really needed all of that motivation. I hope you and your family have a very happy and safe holiday! THANK YOUUUUUU!!!!! – Ms. Kim

Hi, Dr. Lee, the past few days have been a bit hectic with everyone congratulating me on my acceptance. Due to such festivity, I felt like I didn't take enough time to thank you for helping me. I know that many times, I procrastinated and rushed many documents at the last moment. Regardless, you thoroughly looked over them. Through your truthful criticisms and comments, I was able to improve my essays and finish them on time. Without your help, I am not certain if I could have gotten accepted at my dream school. So I sincerely thank you.! – Mr. Kang

DR LEE I GOT IN!!!!!!!!!!!!!!!!!!!!!!!!!!!!!!!! AH I AM SO EXCITEED!! I THOUGHT I MIGHT NOT CUZ I DIDN'T TELL THEM THAT I GOT INTO YALE BUT I GOT 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I'M GONNA GO TO HARVARD!! GAHHH!!!! SO EXCITED!!!!!! I'M SO HAPPY HAPPY HAPPY HAPPY!! THANK YOU! – Ms. Song

Shelby.moon65@gmail.com
대표전화: (949)329-8222
www.MyIvyDream.com

LA Main Office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Tel : (213)245-1662

Torrance Branch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949)329-8222

Irvine Branch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el:(949)329-8222

Seoul Branch
서울시 서초구 서초 4동 1698-15
청림 빌딩 II 602호
Tel:(010)5159-8253